

레미콘 납품 거부로 오등봉 공원 공사 지연

양대 노조 갈등 격화… 모 업체 배제 요구하며 대립
제주지역 레미콘 업체 25곳 중 24곳 한국노총 소속
“독점적 지위 이용해 갑질”… “기사 부당 해고 규탄”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오등봉 공원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레미콘 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며 2주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오등봉 공원 건설현장은 공사에 참여하는 레미콘 업체 14곳 중 13곳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19일부터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13곳 업체는 모두 한국노총 (전국레미콘운송연합회, 이하 전운련) 소속 업체로, 민주노총 소속 A업체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레미콘 업체 25곳 중 24곳이 한국노총 소속으

로, 전운련이 레미콘 업계 내에서 영향력을 갖는 상황이다.

오등봉 공원 레미콘 납품 거부 사태에 대해 전운련은 “A업체가 일방적으로 한국노총 조합원 4명을 해고한 데 대한 투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A업체와 민주노총은 “해고된 기사 4명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혀 왔다”며 노동조합 소속 여부를 두고 시공사에 업무 배제를 강권하는 것은 경영권과 노조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한다.

시공사인 호반건설 측에 따르면 현재 오등봉 공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단지에 각각 100여 명

씩 총 200여 명이다. 레미콘 운송 중단 이전 투입 인력은 총 550여 명이었다. 현재는 레미콘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호반건설 측은 이마저도 이번주 수·목요일이 마지막이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촉구하며 전운련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건설지부와 제주건설기계지부 (이하 민주노총)는 1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레미콘운송연합회는 레미콘 납품 거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전운련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A업체 레미콘 납품을 거부하며 현장은 멈췄다”며 “민주노총에 가입한 레미콘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해당 제조사를 고사시키기 위해 A업체

가 투입되는 현장의 레미콘 납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운송 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자들과 약속한 완공 일자를 맞춰야 하는 시공사 측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양대 노조와 각각 면담을 실시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레미콘 업계에선 한국노총이, 전체적인 현장 인력은 민주노총이 영향력을 갖고 있어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레미콘 업체 내 갈등이 제주도 전체로 번질 수 있어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도와 소통하며 적절한 중재 방식과 개입 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석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등이 덤프트럭 899대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3년간 폐석재 1만3000t 불법매립 업체대표 구속

공장장·토지주·덤프트럭 운전기사 등도 ‘공범’
덤프트럭 899대 분량 매립… 증거 인멸 시도도

석재업체를 운영하며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3000t가량을 불법 매립 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혐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 (70대)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공동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 (60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 (40대), 폐기

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씨 (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 (40대)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경면 소재 5필지 토지 (면적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매립량은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으로 1만3000여t에 달한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중장비업 운영자 C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해당 업체에 5억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자치경찰은 C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백금탁기자

서귀포 낙뢰로 정전·화재 피해 잇따라

서귀포시에서 낙뢰로 인해 정전과 창고 화재 등 피해가 잇따랐다.

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동, 도순동 일대에서 98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 오전 10시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과수원 창고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확인하던 중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오전 11시11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은 과수원 차단기가 심하게 불에 탔고, 화재 발생 지역 주변에 낙뢰 신고가 수차례 확인돼 낙뢰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낙뢰가 총 3027회 발생했다. 2022년 792회, 2023년 620회, 2024년 1615회 등이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제주4·3실무위, 희생자·유족 257명 심사 군법회의 받은 행방불명자·수형자 등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제237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사실조사가 완료된 희생자 65명, 유족 192명 등 총 25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 등을 받은 행방불명자 12명, 수형인 10명 등 수형자 22명이 포함됐으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심사 415명, 보상금 지급결정 변경 95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

명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심사로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9559명 중 96%인 1만8893명 (희생자 604명, 유족 1만8289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제8차 추가신고 접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금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오소범기자

제주소방 ‘1관서 1상담사’ 태부족 한병도 의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돌보지 않고 방치”

참사현장에 출동하며 생인 트라우마 치료를 원하는 소방관이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에도 소방관서별로 상담사가 모두 5명이 필요하나 현실은 2명에 불과하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8026건에서 지난해 7만9453건으로 4년 새 3만1427건 (65.5%)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779건의 상담을 담당한 셈이다.

이에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2024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 (268개

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1관서 1상담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40명의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지난해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 (2028명→3937명)과 자살위험 소방관 (2301명→3141명)도 크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재난 대응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 라 조 생	2~3년생
천 혜 향	3~5년생
황 금 향	3~5년생
한 라 봉 엠	3~6년생
남 진 해	3~4년생
성 전 온 주 생	3년생
하 레 조 생	3년생
탐 라 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 평	3년생
진 지 향	3년생
탕 자 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토묘

제18-서귀포-2019-20-03

-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 다양한 년수 포토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천혜향,
황금향,카라향,레드향,
히골,유라조생,레몬.

신품종

달코미,우리향,미래향,
설향,맛나봉,레드스타,
하레조생,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

신품종 2026년 예약 주문 받습니다

미래향,우리향,사라향,달코미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 레드향 5년생, 7년생
- 천혜향 3-4년생
- 한라봉 7-8년생
- 미니향 7-8년생
- 유리실생 3년생, 5년생
- 하레조생 5-6년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10-6854-1336, 010-2693-1336